코로나에도 '추석차례'는 사찰에서

차례 접수 활발, 직계만 모이며 선호도 높아져

사찰 마당 활용, 방역준수
회차 늘려 회당 인원 줄여
예년비해 참가 증가사찰도


사찰에서 진행되는 추석 합동차례 모습.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봉은사에 다니는 직장인 김 모씨. 올해 추석에는 사찰에서 차례를 지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직계가족만 겨우 모일수 있게 되면서 차례를 집에서 지내기가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인한 차례상차림 부담도 사찰 차례를 신청하는 데 한몫했다.

김 모씨의 경우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속에 사찰 차례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 눈길을 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9월 8일 "추석 당일인 21일 대웅전과 지장전, 영각, 선불당, 미륵전, 전통문화체험관2관, 판전, 영산전 등서 진행되는 단독차례 신청 대부분이 접수마감됐다"고 밝혔다. 21일까지 접수받는 합동차례 또한 예년보다 많은 인원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차례는 오전 8시와 10시, 오후 2시 세차례에 나눠 법왕루에서 진행된다.

장영욱 봉은사 종무실장은 "단독차례의 경우 오히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다. 코로나 전에는 명절 여행 등으로 사찰 차례가 증가했다면, 이번 추석 차례는 친척모임 등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례라도 지내기 위해 많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도 9월 21일 오전 8시와 오전 11시, 오후 1시에 세차례에 걸쳐 대웅전에서 합동차례를 진행하는 가운데, 9월 9일까지 접수된 인원이 전년 대비 약 100여 명이 많다고 밝혔다.

조계사 측은 "합동차례의 경우 외부에서 대기하다가 순서대로 대웅전 내에서 차례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다"며 "집안 실내보다 야외인 사찰 경내를 활용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화계사(주지 수암)도 9월 21일 차례를 진행한다. 화계사는 불교식 다례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례와 차례의 차이점은 술과 고기 등이 올라가지 않고, 채식과 차를 중심으로 상이 차려지며, 상의 구성도 유교식과 다르게 구성된다. 화계사는 여기에 지난 설부터 합동과 단독으로 나누어 각 전각에서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게 배려했다. 이번 합동다례는 오전 8시, 오전 10시, 오후 2시의 3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법원)도 9월 21일 오전 10시 2층 큰법당에서 추석합동차례를 진행한다. 매년 진행해 오던 새터민 합동차례는 올해는 진행하지 않는다. 국제선센터는 큰법당의 경우 수용인원이 500명 규모로 10%인 50명이 함께 차례를 지낼 수 있다. 국제선센터 또한 코로나19에도 차례객들이 줄지 않았다.

국제선센터 관계자는 "사찰 차례의 경우 매년 사찰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빠지지 않고 계속 지내시는 것이 특징"이라며 "점점 차례객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행사 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도 오전 5시와 7시, 10시의 3부로 나누어 합동차례를 진행한다. 이번 합동차례는 오전 5시 차례와 7시 차례에 10시 차례를 추가했다. 대신 거리두기를 위해 가족 대표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효행본찰인 수원 용주사를 비롯해 전국 교구본사 또한 9월 21일 합동차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교식 차례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코로나19로 명절 모임이나 행사가 위축되고 있지만 조상선망의 마음은 그대로 일 것"이라며 "사찰에 면밀하게 대응해 이러한 대중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 보다 앞장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동곡학원 인수합병한다

9일 법인이사회서 의결
교육부 인가 거쳐 귀속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가 지역 명문 종립사학인 동곡학원을 인수합병키로 했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9월 9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39차 이사회를 열고 학교법인 동곡학원 인수합병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가 설립한 동곡학원은 지난 2010년 경북 영천 선화여고를 인수해 운영해 왔다. 현재 총 15학급 32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현재까지 6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지역 명문 학교다.

앞서 동곡학원은 지난 8월 6일 이사회를 열고 선화여고를 유지 ·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목적이 같고, 중등교육기관의 운영 경험이 풍부한 학교법인 동국대를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의결한 바 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이자 동곡학원 前 이사장 돈관 스님은 "동곡학원이 선화여고를 인수해 운영한 것이 10년이 됐다. 더 큰 발전을 위해 인수합병에 동의해준 동국대 이사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선화여고가 경북 영천의 명문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국대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양 법인은 합병약정을 체결하고 교육부 인사, 등기 등의 과정을 거쳐 동곡학원은 동국대로 귀속된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의 교육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3주기 평가에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는 높은 평가를 받아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사장 성우 스님은 "교육부 평가에서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평가 중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좋은 부분은 더 갈고 닦아 학교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민추본 '평화통일도량', 38곳 돌파

9월 6일 12곳 단체협약식
3월 말 첫 체결 이후 쾌거



한반도 평화통일에 힘을 모으는 사찰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추진하는 '108 평화통일도량' 사업이 올 3월 1호 사찰협약에 이어 반년 만에 38곳을 돌파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는 9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평화통일도량 제16~38호 단체 협약식' 을 진행했다.〈사진〉 평화통일도량은 민추본의 한반도 평화통일 사업을 후원하고 사찰 신도와 불자들에게 그 취지를 알리는 토대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본부장 월우 스님과 평화통일도량 협약 사찰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협약사찰은 진도 쌍계사와 합천 백련암, 부산 고심정사, 하남 정심사, 세종 황룡사, 수원 봉녕사, 남양주 천보사, 칠곡 송림사, 안동 광흥사, 안동 연미사 등 12개 사찰이 협약에 동참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월우 스님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분야에서 문화를 교류하는 민추본의 역할은 하루속히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로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은 민추본이 추진했다기 보다는 각 교구 말사 주지스님 한 분 한 분의 원력이 모인 성과다. 하루속히 평화가 빨리 찾아와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발원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평화통일도량 주지스님들의 다짐도 이어졌다. 쌍계사 주지 정상 스님은 "한반도에 암흑이 이어지는 것은 공동체의 불행이기에 우리 민족이 함께하는 것에 희망을 두고 미력하나마 평화통일도량으로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도 "민추본이 종단 활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전국 사찰들도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뜻 깊다"고 말했으며, 태허 스님은 "사찰에 방문하는 불자들과 함께 남북 평화통일의 흐름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사업부(사업부장 주혜)는 협약식에 참석한 평화통일도량 주지 스님들께 〈불교성전〉과 염주로 이뤄진 선물세트를 공양했다.

송지희 기자

오체투지로 모아낸 평등 염원, 국회로

조계종사노위, 9월10일 회향
국회의사당에서 기자 회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9월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지막 오체투지 순례일정을 진행했다.

평등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 염원을 모아내기 위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오체투지 순례가 국회의사당을 끝으로 회향했다. 오체투지는 회향했지만 그동안 모아낸 염원들을 각 당과 국회에 전달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는 9월 10일 마지막 오체투지 순례일정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거치며 당대표들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하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안 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의당 당사에서 당대표단과 합류한 스님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체투지를 회향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국민 염원을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정의당 심상정 · 정혜영 의원도 국회로 향한 여정에 힘을 보탰다.

사노위에 따르면 오체투지 순례가 이어지는 동안 스님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체감했다. 박수로 환영하는 사람들, 음료수를 놓고 가는 슈퍼마켓 사장님을 만나기도 했다. 인천에서 왔다는 한 성소수자 단체 활동가는 울먹이며 법 제정을 호소했으며, 발달장애인들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외쳤다. 넓은 교차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차를 막아 서며 오체투지에 나선 스님들을 호위해 주기도 했다.

위원장 지몽 스님은 "이분들의 희망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에 대한 법적 차별을 해결해 평화롭게 살자는 평범한 진리에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며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에 얽매이지 말고 책무와 양심에 따라서 입법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오체투지' 는 8월 30일 서울 종로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출발해 열흘간 진행됐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해 노동자부터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난민 등 다양한 정체성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 158곳이 연대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